



## ‘신도시’에서 ‘전법도시’로 변신

### 경기 파주·김포·부천

**# 파주**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는 남북교통의 요충지 파주. 경기북부 지역 대부분이 그렇듯이 파주 불교를 얘기하면서 군 포교를 빼놓을 수는 없다. 파주의 사람은 50여 곳. 이들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범회 및 후원 등을 통한 군 포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군 포교에 집중해 온 파주불교가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현재 파주 인구는 26만명 정도. 그런데 교하 신도시가 들어서고 출판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는데다, 남북협력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파주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신행 및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채비를 하고 있다. 신도인문교육의 장인 실천불교학교와 경전학교, 일요법회,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해 온 보광사는 이들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고, 약천사는 시민들

**파주** 떠오르는 통일도시 불심도 부상

**김포** ‘중앙승가대’ 시너지 확대에 노력

**부천** 화합과 특성화 지역포교 키워드

이 편안히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요사채 건립에 들어가는 한편, 사찰을 지역민들의 쉼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인요양시설 ‘거북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약수암은 장애인시설 설립 등 종합복지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민들을 맞겠다는 각오다.

**# 김포** 김포는 한국불교의 최고의 승가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중앙승가대가 김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중앙승가대를 빼놓으면 김포 불교에서 얘기할만한 것은 별로 없다.

김포의 사찰 수는 40여 곳 정도. 도시가 형성되면서 10여 년 전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김포 인구가 22만명임을 감안하면 사찰 수가 적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김포불교는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찰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포교 여건이 여의치 않고, 무속신앙이 널리 퍼져 있어 정법 포교를 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용화사 금정사 정각사 여래사 청통사 광사 문수사 등은 포교 프로그램 또는 법회를 통해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중앙승가대도 불교대학과 일요법회를 통해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포불교가 침체를 벗고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찰들 간의 불협화음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김포불교는 사암연합회와 승가협의회로 양분돼 있는 상태.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계속해 규모가 커지며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금정승가대는 달리 불교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포 용화사 불교대학 수료자들이 지난 6월 성지순례차 방문한 화성 용주사 효행박물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부천** 부천불교는 꽤 활발하다. 사찰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사암연합회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은 다른 지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다방 수보다 교회가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록세가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교세가 앞선다.

이렇게 부천불교가 지역에서 높은 위상을 갖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부천사암연합회장 영담 스님을 중심으로 지역 스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특징을 갖춘 사찰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불교를 대표하는 석왕사는 복지관, 문화체육

시설, 생활시설, 장묘시설 등 17개 부설기관을 운영하면서 일요가족법회, 어린이·중고등부·청년회 법회와 불교대학, 기초교리 강좌 등으로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석왕사와 인접해 있는 향림사는 기초교리, 일요법회 등 각종 신행 프로그램과 합창단 등의 신행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소림사와 보문사는 불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새싹 포교에 나서고 있다. 또 대덕사는 불교 복지기관과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복지활동으로 불교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한명우 기자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하루도 거르지 않고 봉사활동

성인 스님 (부천 대덕사 주지·남부경찰서 경승위원장)

성인 스님은, 대중을 위한 봉사가 곧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단 하루도 봉사활동을 거르지 않으며 26년간 부천불교 포교에 앞장서왔다. 특히, 부천청소년선도위원으로 20년 넘게 한 달에 두 번씩 청소년 선도순찰을 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13년간 남부경찰서 경승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찰 포교에도 기여했다. 부천 해병전우회 불자들을 이끌고 있으며, 평생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 교육·신행 중심도량으로 중창

허정 스님 (파주 약천사 주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포교원 연수부장·총무원 사회국장·조계사 주지를 역임한 허정 스님은 뛰어난 식견과 안목으로 파주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0여 년 전 대중전만 남아있던 곳에서 약천사를 중창하고 불교대학과 사경·주력 등을 통해 교육과 신행활동에 매진해 왔다. ‘주지는 절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으로 법화나 기도시간에 빠지지 않는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 약천사를 지역민의 쉼터로 가꾸겠다는 원력을 갖고 있다.



### 사암련 이끌며 불교위상 높여

영담 스님 (부천 석왕사 주지·부천사암련 회장)

부천불교를 이끌고 있는 리더. 부천에서 영담 스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년 동안 사암련 회장을 맡아 불교의 위상을 높여 놓았다. 부천의 스님들은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고, 모든 사찰을 잘 아우르며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복지관과 체육문화시설 여섯 곳, 협동조합 등 17개의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과 등극대 이사를 맡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 파주 불교 복지의 대명사

해각 스님 (파주 약수암 주지)

해각 스님은 파주 불교 복지의 대명사로 불린다. 17년 전부터 노인요양시설인 ‘거북마을’과 영탑추모공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체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장애인보조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파주경찰서 경승실장, 파주공무원복지연합회 지도법사, 태고종 경기북부총무원 총회의장 등을 맡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하안거맨 꼭 방부들여

명훈 스님 (김포 금정사 주지)

가장 좋은 포교는 수행이라는 소신이 확고하다. 스님이 스님다워야 대중의 귀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훌륭한 포교방편이라고. 그래서 명훈 스님은 아무리 바빠도 하안거 때는 방부를 들인다.



김포에서 34년, 금정사 주지를 맡은 지는 15년. 지난 세월동안 사암련 회장과 청소년·군인법회를 통해 지역 포교에 매진했다. 지금은 인터넷 포교를 위해 사찰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 합창단 등 신행단체 활성화

범공 스님 (부천 향림사 주지)

‘부처님 일은 신나게’, 범공 스님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신도들을 대한다. 절의 주인은 신도고, 그 주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절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여기고 신도들에게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93년 향림사에 온 이래 일요법회 등 각종 법회와 합창단, 거사법회 등 각종 신행단체를 활성화시켰으며, 보다 넓은 신행공간 확보와 복지법인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 발일 즐기며 검소·소박·소탈...

일문 스님 (파주 보광사 주지·조계종 중앙총회의원)

대중과 격의없이 어울리며, 발일을 즐기는 스님. 이런 모습을 보면 일문 스님이 파주불교를 대표하는 보광사 주지이자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최근에도 3일 동안 발일을 하고 사찰 주변 잡초를 베는 손이 부었을 정도. 96년 구입한 준중형 자동차를 아직도 타고 다닐 정도로 검소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실천불교승가회 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다.



1999년 보광사 주지 부임 이래 파주불교를 원만히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스님간 의사소통 창구역할

범신 스님 (파주 청강암 주지)

34년 전 파주에 뿌리를 내린 범신 스님은 20여년 동안 파주불교사암련 총무를 맡아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는 파주불교사암련 부회장 겸 총무이자 파주경찰서 경승, 태고종 북부총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친근감 있는 성격으로 지역 스님들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주불교 발전을 위해 시내 포교당 마련 등 파주불교 발전을 위한 기획에 여념이 없다.

### 포교·사회·환경활동 왕성

지관 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김포에서 제일 바쁜 스님이다. 각종 포교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관 스님은 야생조류보호협회 고문, 김포경찰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불자회를 창립하고 지도법사를 맡아 지역 신행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 2001년부터 중앙승가대 포교학과 외래교수로서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용화사를 김포 제1의 포교도량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명상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 행화로 전국대회 네차례 입상

일선 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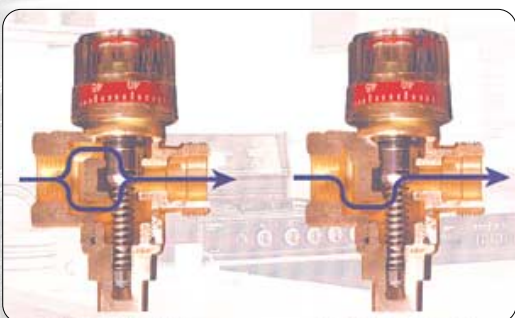
일선 스님은 3년 전 운문사에 들어와 도량을 정비하고 일요법회 등을 열며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체계적인 도심포교에 나선다는 계획 아래 앞날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미래가 기대되는 의지가 굳은 스님이다. 10년 간 선방에서 수행하다 중앙승가대에 입학해 공부한 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공부 중이다.



행화 등으로 2004예술대전 특선 등 전국대회에서 네 차례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 EPS VALVE 는?

기존 단일 유로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중유로방식을 채택하여 수로의 개폐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소음을 없애고 효율을 높여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킴



이중유로방식밸브      단일유로방식밸브

##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1.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품
2. 개별 / 중앙 / 지역난방 어느 곳든 설치가능 (전국사찰, 개별보일러, 태양열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3. 저렴하고 간편한 설치 시공 (난방상태 점검, 설치, 사용까지 만나질이면 충분합니다.)
4. 반영구적 수명 (외부 동력이 필요치 않은 제품으로 반영구적 제품수명 유지)

(주)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수온감지식 온도조절밸브 난방시스템

(난방은 수에 의한 완벽한 비례제어식 유량조절밸브)

“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업 (주)이플러스세이버는 최소 50%이상의 난방비 절감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

각 지역 대리점 및 설비업체 모집중